

교회소식 Bekanntmachungen der Gemeinde

마인츠중앙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ir heißen alle herzlich willkommen und segnen im Namen des Herrn.

-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내 삶에 성령충만을 소망합시다.
- 오늘 설교는 최천수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기도로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아비투어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고성찬, 이재화)
- 다음 주일 (6월 12일)예배는 11시 30분부터 한독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식사 및 다과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 양성이 나오신 분들은 위기관리팀(이정수장로, 김민성 집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담임목사 한성호
교육전도사 장재성
시무장로 소병찬, 이정수, 이태성

예배 및 봉사구역

날짜	기도	안내
06.05	박도실	
06.12	배형만, 고광진	
06.19	김영균	
06.26	엄명용	

후원 선교지

- 키르기스스탄(다니엘 P)
- 코소보(S00)
- 독일 퀼른(N00)
- 캐냐(L00)
- 베트남(L00)
- 타지키스탄(L00)
- 마다가스카르(B00)

온라인 현금 안내

IBAN: DE78 5519 0000 0962
2740 15
BIC: MVBMDE55

:: 온라인 현금 시 입력 항목 ::
십일조 - Zehnte
감사현금 - Dankopfer
주일현금 - (Sonntags) Kollekte
월정현금 - Monatskollekte
선교현금 - Spende f. Mission
건축현금 - Spende f. Kirchenbau

*온라인 현금은 비고란에 위 항목
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인츠 중앙교회

AD.1986 Evangelische Kirchengemeinde
Mainz Chung-Ang e.V.

원로목사 박의석
담임목사 한성호
목양실. 06131 380 9981

Berliner Str.37 55131 Mainz
www.machung.net

2022년 표어

침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9)
Darum suchen wir auch unsere Ehre darin, daß wir ihm
wohlgefallen, sei es daheim oder nicht daheim. (2.Korinther 5:9)

제37권 23호 2022년 6월 5일

주일예배 1부 12:00

인도자: 한성호 목사

찬 양	Lobpreis	찬양부
※ 묵 도	Eingangsgebet	다함께
※ 찬 송	Lobpreis	183 장
※ 신양 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성시 교독	Wechsellesung	인도자
대표 기도	Gebet	박도실 집사
봉 헌	Kollekte	212 장
성경 봉독	Schriftlesung	로마서 8:28
찬 양	Lobpreis	물 위를 걷는 자
말씀 선포	Predigt	오늘 하루만 사는 신양
광 고	Abkündigungen	인도자
※ 찬 양	Schlusslied	330 장
※ 축복 기도	Segen	최천수 목사

※ 표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안내

- 주일 1부예배 주일 12:00 본당
- 주일학교예배 영유아/유치 유년/ 초등 주일 12:00 별관
- 수요 예배 주일 12:00 별관
- 청소년부예배 금요 20:00 본당
- 청년부 예배

요한복음 10:3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Johannes 10:3 Dem macht der Türhüter auf, und die Schafe hören seine Stimme; und er ruft seine Schafe mit Namen und führt sie hinaus.

성령강림절, 오순절(五旬節, Πεντηκοστή, Pentecost)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어원은 '50'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한 것이 그 유래입니다.

성령강림 이전의 오순절은 유대인의 절기로서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의 3대 절기인 무교절·칠칠절·초막절 중의 하나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면서 제정된 날입니다. 칠칠절의 문자적 의미는 이스라엘 농경 문화에서 비롯되었는데, 초실절에 첫 수확을 시작하여, 7주에 걸쳐 밀을 수확하고 처음 수확한 밀로 만든 두 개의 빵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고, 모인 사람들이 성령충만하여 방언으로 말씀을 전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성령 강림 대축일, 성령강림절, 또는 성령강림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강림절, 오순절에 대한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훌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와 같이 바벨탑 사건으로 혼잡하게 된 인류의 언어가 통일된 인류 최초의 사건이 오순절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절기였던 칠칠절이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이라면, 오순절은 약속된 성령을 주셔서 방언의 능력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하루에 3천 명, 5천 명씩 구원을 받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 오순절을 사실상 기독교 초대교회의 성립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순절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거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이는 사도들 조차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기에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지만 제자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을 기점으로 제자들, 사도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성령받고 권능을 받아 모든 팝박을 이겨내고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기를 죽기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가 성령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마인츠중앙교회는 주님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나누는 신앙공동체, 가족공동체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힘쓰는 예배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더불어 행복한, 이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예수공동체
마인츠
중앙교회는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

기도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원하고 소원하며 바라는 삶입니다.

- G. 캠벨 모건

Prayer is life passionately wanting, wishing, desiring God's triumph.

- G. Campbell Morgan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소망을 소망으로 바로 보게 하고 삶의 문제를 이기게 하는 힘을 제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견디어 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 그 시간을 메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힘쓸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제목

1. 아비투어를 준비하는 자녀들(고성찬, 이재화)에게 건강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총기로 충만케 하옵소서.
2. 가족 방문 등 여행이 많은 계절에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3.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감염이 되어도 큰 증상없이 지나가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곧 완전하게 회복시키시옵소서.
4. 안수집사를 위한 기도
 -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 교회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5.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멈추게 하옵시고 코로나와 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인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6. 선교사님의 삶을 지키시고 사역 가운데 선한 열매를 주시며 성령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 우리, 교회 Vision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예수공동체가 됩니다.